

《孟子》의 立破 구문 연구

— 立破法을 통해 본 孟자의 好辯 특징

고 광 민*

<목 차>

1. 들어가며
2. 立破의 구도
 - 2.1 先立後破
 - 2.2 立破의 중복
 - 2.3 全破
3. 破의 집진적 압박
4. 비유를 통한 공세
5. 나오며

1. 들어가며

儒家 성현 중에 論辯이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孟子를 떠올릴 것이다. 그는 전국시대 여러 제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을 비판하고 그릇된 위정자들의 정치를 바로 잡았다. 《孟子》에는 맹자와 타인이 나눈 대화가 많은데, 그 대화 속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맹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孟子를 “好辯”이라고 평가했는데¹⁾, 이에 대해 孟

*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1) 公都子が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이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러신지 감히 묻겠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어찌 따지기를 좋아하겠는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公都子曰: “外人皆稱夫子好辯, 敢問何也?” 孟子曰: “予豈好辯哉! 予不得已

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聖王이 나오지 않아 제후가 함부로 행하였고, 초야의 선비들도 제멋대로 주장을 펼치면서 楊朱·墨翟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에 천하의 주장이 楊朱에게 귀결되지 않으면 墨翟에게 귀결된다. …… 楊朱의 道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孔子의 道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道는 그릇된 학설로 백성을 속여 仁義를 가로 막는다. ……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先聖의 道를 보호하고, 楊墨을 막으며, 부정한 말을 몰아내고 잘못된 학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 ……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滕文公下>

위의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孟子는 당시 儒家의 쇠퇴 원인을 楊·墨 학설의 유행에서 찾았다. 이에, 楊朱·墨翟의 학설을 몰아내지 않으면 儒家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 楊朱·墨翟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孟子의 비판은 주로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고, 그릇된 행동을 막고, 근거 없는 말을 추방하는 것”²⁾ 것에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孟子에게 “好辯”이라고 했던 것은, 맹자가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나타났던 “말 잘하는 능력” 혹은 “따지기 좋아하는 모습”일 것이다. 특히 그것은 타인과의 의견대립이나 충돌 속에서, 잘못을 찾아내고 엄하게 따져 밝히는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이해된다.

《孟子》에 자주 등장하는 맹자의 타인과의 대화는 대략 두 가지 형식이다. 첫번째는 타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형식이다. 즉 “군자가 직접 아들을 가르치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³⁾처럼 자신의 궁금한 점을 孟子에게 묻는 형식이 있다. 또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明堂을 부수라 하니, 부수어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⁴⁾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孟子

也.”) 《孟子·滕文公下》

2) <滕文公下>: “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以承三聖者, 豈好辯哉! 予不得已也.”

3) <離婁上>: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 何也?」”

4) <梁惠王下>: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毀明堂, 毀諸, 已乎?」”

의 판단을 묻는 형식이 있다. 두 번째는 孟子和 타인의 의견이 대립되는 형식이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孟子가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형식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대가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어 孟子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로잡고(正人心)’, ‘막고(距諛行)’, ‘추방하는(放淫辭)’ 言辭들이 나오게 된다. 이때, 맹자는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드리도록 설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孟子의 好辯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필자는 《孟子》에 나타난 의견의 대립과 충돌에 관심을 갖고, 맹자가 어떻게 상대와 논쟁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제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쟁은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이며, 설득과 승복은 충돌이 하나로 합일하는 과정이다. 문장의 구도를 연구하는 ‘章法學’⁵⁾의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立破法’이라는 구도로 설명한다. 立은 일종의 논점이나 개념이며 破는 그것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 속에서 立과 破를 대립시킴으로써 토론하는 주제의 옳고 그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법이 바로 ‘立破法’이다.⁶⁾ 장법학의 연구 방법이 비록 주관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문장의 형식적인 구도와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이 立破法을 근거로, 맹자가 타인과의 의견 대립 속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설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好辯의 구체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5) 章法學은 주로 臺灣에서 연구되는 학문 분야이다. 章法은 문장의 형식을 꾸미는 방법을 지칭하며, 章法學은 부분적인 수사기교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詩, 詞, 散文 등을 포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식구도를 연구하는 하는 학문이다. 章法學 연구자들은 「질서」, 「변화」, 「연결」, 「통일」을 문장의 골격으로 삼아 이를 근거로 「因果」, 「正反」, 「賓主」 등 35종의 문장 구도를 수립하여 문장의 형식을 연구하고 있다.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臺北: 萬卷樓, 2000년), pp.13~15 참고.

6) 陳滿銘은 《章法學綜論》에서 立破法을 “「立」과「破」를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토론하려는 주제의 옳고 그름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법이다(將「立」與「破」之間形成針鋒相對使得所欲探討的主題更加是非分明的一種章法)”라고 설명하였다. 陳滿銘 《章法學綜論》(臺北: 萬卷樓, 2003년), 29쪽.

2. 立破의 구도

立破의 구도는 立破의 위치에 따라 先立後破, 後破先立으로 나누어 진다. 맹자는 先立後破를 자주 사용하였지만 後破先立의 경우는 그 예가 없다. 이 밖에 立破가 중복되는 立破立破, 이를 변형한 破立破, 破만 있고 立이 없는 全破 등, 孟子는 매우 다양한 형식의 立破구도를 사용하였다.

2.1 先立後破

他人이 먼저 어떠한 관점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孟子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형식이 先立後破이다. 先立後破는 다른 문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立破구도로서, 《孟子》 역시 형식을 자주 사용하였다. 다만 《孟子》에서 사용된 先立後破의 구도는 모두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先立後破의 구도는 <梁惠王上>의 첫 단락에 잘 나타난다.

孟子가 梁惠王을 알현하였다. 梁惠王이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겠습니까?”

孟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仁義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며, 士와 庶人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할 것입니다. …… 어진 자가 그 아버이를 버리는 경우는 없으며, 義로운 자가 그 군주를 뒷전에 두는 경우 또한 없습니다. 왕께서는 仁義만을 말씀하실 따름이니, 어찌하여 利得을 말씀 하십니까?”

孟子見梁惠王，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梁惠王上>

위 문장은 언뜻 보면 梁惠王과 孟子的 문답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 보면 문답 형식을 이용한 立破法에 해당된다. 만약 일반적인 문답의 형식이라면 “그대가 왔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겠소?”라는 梁惠王의 질문에, 孟子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孟子는 利得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梁惠王의 질문 자체를 비난한다. 때문에 이 단락은 梁惠王과 孟子的 대립구도이므로 立破法에 부합한다. 여기에서 보여준 孟子的 태도는 매우 직설적이다. 梁惠王의 질문에 대해 孟子는 예들러 표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비판을 가하며 처음부터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여 긴장감을 준다. 군주의 그릇된 정치 관념에 당당히 맞서 비판하는 孟子的 好辯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孟子는 군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도 과감히 비판한다.

白圭가 말하였다. “제가 물을 다스리는 것이 禹임금보다 낫습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그대가 지나칩니다. 禹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물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禹임금은 四海를 물웅덩이로 삼았는데, 그대는 지금 이웃나라를 물웅덩이를 삼았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洚水라 하는데, 洚水는 洪水입니다. 이는 어진 사람이 꺼려하는 것이니, 그대의 생각이 지나칩니다.”

白圭曰 “丹之治水也, 愈於禹” 孟子曰 “子過矣. 禹之治水, 水之道也,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隣國爲壑. 水逆行, 謂之洚水. 洚水者, 洪水也. 仁人之所惡也, 吾子過矣.” <告子下>

白圭라는 사람은 당시 어느 제후국의 제방을 쌓고 물길을 막아 홍수를 막았는데⁷⁾, 자신의 공로를 禹임금의 治水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孟子는 禹임금과 白圭의 治水事業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면서, 그의 그릇된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도 대화 형식이지만, 白圭의 자만과 이에 대한 맹자의 비판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立破法에 속한다.

위에서 인용한 두 예문의 先立後破 형식은 처음부터 立破의 대립이 팽팽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비판

7) “조씨가 말하였다. 당시 제후국에 작은 홍수가 있었는데, 백규가 이를 위하여 제방을 쌓고 물을 막아 다른 나라로 흘려보냈다(趙氏曰, 當時諸侯有小水, 白圭爲之築堤, 壅而注之他國)” 《論語集註·告子下》.

을 가하기 때문에 급격한 대립과 충돌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孟자의 날카롭고 강렬한 이미지가 드러난다. 이와 다르게 비교적 부드러운 형식으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齊나라 사람이 燕나라를 쳐서 승리하였다. 宣王이 말하였다. “어떤 이는 과인에게 取하지 말라 하고, 어떤 이는 과인에게 取하라 합니다. 萬乘의 나라를 가지고 萬乘의 나라를 정벌하여 50일 만에 완전히 함락시켰으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孟子가 대답하였다. “取하여 燕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거나 取하소서. 옛 사람 중에 이를 행하신 분이 있으니, 武王이 바로 그 분입니다. 取해서 燕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거든 取하지 마소서. 옛 사람 중에 이를 행하신 분이 있으니, 文王이 바로 그 분입니다. 萬乘의 나라를 가지고 萬乘의 나라를 정벌할 때, 백성들이 바구니에 밥을 담고 병에 물을 담아 왕의 군대를 환영함은 어찌 만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재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그들을 만 곳으로 전향할 것 입니다.”

齊人伐燕勝之。宣王問曰“或謂寡人勿取，或謂寡人取之。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五旬而舉之，人力不至於此，不取必有天殃，取之何如？”孟子曰“取之而燕民，悅則取之。古之人有行之者，武王是也。取之而燕民，不悅則勿取。古之人有行之者，文王是也。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簞食壺漿，以迎王師，豈有他哉！避水火也。如水益深，如火益熱，亦運而已矣。 <梁惠王下>

齊나라가 燕나라를 쳐서 승리하자, 齊宣王이 燕나라를 취하고 싶어 했다. 때문에 그는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人力이 아니라 말하며, 燕나라를 취하지 않으면 ‘하늘의 재앙(天殃)’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완곡하게 燕나라를 취하고 싶은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孟子 역시 완곡하게 그것을 반대한다. 燕나라를 取하는 관건은 ‘백성이 기뻐하는 것(民悅)’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며 武王과 文王의 예를 든다. 여기에서 孟자의 의도는 취하지 말라는 쪽에 실린다.⁸⁾ 그는 또 齊나라가 燕나라를 칠 때, 백성들이 환호했지만 이는 기

8) 齊宣王이 燕나라를 취하려는 것은 燕나라의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며, 강한 힘을 과시해서 燕나라를 복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다음 단락에는 齊나라가 燕나라를 취한 이후에 여러 제후들이 燕나라를 구원하려하였고, 이에 齊宣王이 孟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孟子는 “(齊나라가 燕나라의) 父兄을 죽이고 子弟들을 구속하

쁘기 때문이 아니라 燕나라의 폭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齊나라가 폭정을 가하면 그들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전향할 것이라 했다. 결국 燕나라 백성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燕나라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완곡한 표현에 다시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논리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 비록 앞의 경우처럼 立破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완곡하게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비판적인 요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先立後破는 하나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하나의 비판이 가해지는 형태였다. 이밖에 《孟子》에는 立과 破가 각각 두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陳代가 말하였다. “제후를 만나보지 않으시니 선생님의 度量이 작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번 만나보면, 크게는 王으로 만들 수 있고 작게는 覇者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옛 기록에는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편다’ 하였으니 아마도 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옛날 齊景公이 사냥하러 갔을 때, 깃발을 가지고 사냥터 관리자를 불렀으나 그가 오지 않자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는 ‘志士는 (뜻을 펼치다가) 구렁텅이에 밀려 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勇士는 (용맹을 드러내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공자는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서 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만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간다면 어떠하겠는가?

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이익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이득을 위해서라면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곧게 하는 것’도 하겠는가? 옛날 趙簡子가 王良으로 하여금 자신이 총애하는 亥라는 신하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하게 하였다. 그런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였다. 亥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고, 그 종묘를 훼손하며, 그 나라의 중요한 기물을 옮긴다면 어찌 옳을 수 있겠는가?(若殺其父兄, 係累其子弟, 毀其宗廟, 遷其重器, 如之何其可也)”라고 반문하였다. 또 “왕께서 속히 명령을 내려, 노약자들을 돌려보내 주며, 그 重器를 빼앗는 것을 중지하고, 燕나라 민중들과 상의하여, 임금의 세위준 뒤에 그곳을 떠나가면 오히려 전란이 멈출 것입니다.(王速出令, 反其旄倪, 止其重器, 謀於燕衆, 置君而後, 去之, 則猶可及止也)”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齊나라가 燕나라를 친 이후에 상당부분의 약탈과 불법이 자행되었으며, 齊나라가 燕나라를 취하는데 있어서 백성의 기쁨(民悅)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注에서 “(齊나라는 燕나라에) 인정을 행하지 않고 방자하게 잔학한 짓을 하였으니, 燕나라 백성들의 염원을 어루만지고, 제후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今乃不行仁政而肆爲殘虐, 則無以慰燕民之望, 而服諸侯之心).”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근거해 볼 때, 孟子는 齊宣王이 燕을 취하고자 함은 결코 백성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고 이렇게 넌지시 말한 것이다. 《論語集註·梁惠王下》 참고.

‘그는 천하에 형편없는 수레꾼이었습니다.’하였다. 누군가가 이 말을 王良에게 전하자, 王良이 ‘다시 한 번 몰게 해주시오’라 간청하여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새를 열 마리나 잡게 해줬더니 亥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천하에 훌륭한 수레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簡子가 ‘내가 그 사람을 시켜 네 수레를 맡아서 몰아주게 하겠다.’하고는 王良에게 말했더니, 王良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亥를 위해 규범에 따라 수레를 몰았더니 온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규범에 어긋나게 몰았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 …… 저는 저런 소인과 수레 타는 것에는 통달하지 못하니 사직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말 모는 御者와 활을 쏘는 射手도 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비록 짐승과 새들을 산언덕만큼 얻는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선비가 만약 正道를 굽혀 저들을 따른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대의 생각이 틀렸도다. 자기를 굽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끈게 할 수는 없다.”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曰‘枉尺而直尋’, 宜若可爲也.” 孟子曰 “昔齊景公, 田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孔子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昔者, 趙簡子使王良, 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千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彊而後, 可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與女乘, 謂王良, 良不可, 曰 ‘吾爲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 爲之詭遇, 一朝而獲十. …… 我不貫與小人乘, 請辭’” 御者, 且羞與射者比, 比而得禽獸, 雖若丘陵, 弗爲也, 如枉道而從彼, 何也. 且子過矣,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 <滕文公下>

陳代는 孟子的 제자이다. 그는 스승인 孟子的 王道政治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후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후를 찾아보지 않는 孟子에게 ‘도량이 작다’고 비판하고, 정도를 조금만 굽혀 제후들에게 다가가면 쉽게 功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다. 陳代의 의견은 두 가지다. 孟子는 도량이 작아 제후를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과 목적을 위해 정도를 조금 굽히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孟子는 각각의 반론을 가한다. 孟子는 《左傳·昭公20年》⁹⁾의

9) 《左傳·昭公20年》 “12월, 齊侯가 沛에서 사냥을 하다가 활을 들어 동산 관리자를 불렀다. 그가 오지 않자 사람들을 시켜 붙잡아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전에 先君께서 사냥을 하실 때에는, 깃발을 들어 大夫를 부르고, 활을 들어 士를 부르고, 가죽 모자를 들어 동산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신은 가죽 모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를 풀어 주었다. 공자가 ‘도를 지키는 것이 관직을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군자들은 옳다고 여겼다. (十二月, 齊侯田于沛, 招虞人以弓, 不進, 公使執之. 辭曰, “昔我先君

예를 든다. 동산을 관리하는 이들도 자신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부르지 않으면 응하지 않거늘, 제후들이 자신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편다(枉尺而直尋)”는 말에 비판을 가한다. 陳代는 이익을 위해 원칙을 다소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孟子는 이득을 위해서라면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펴는 것(枉尋而直尺)”도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런 다음, 《左傳·昭公20年》에 있는 예를 들어 말몰이꾼도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데, 어찌 선비가 정도를 굽힐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이처럼 立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의견을 破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立1立2破1破2의 구도라고 할 수 있지만 陳代와 孟子의 한차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 先立後破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찾아 상대방의 그릇된 사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孟子의 모습에서 好辯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2.2 立破의 중복

立破의 형식 중에는 先立後破처럼 立破가 단수로 끝나지 않고, 立破立破 혹은 立破立破立破와 같이 立破가 반복되는 형식이 있다. <滕文公下>의 彭更과 孟子의 대화는 立破의 반복된 형식을 잘 드러낸다.

彭更이 물었다.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이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이곳저곳 제후들에게 祿을 먹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닙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그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에게서 받는 것이 옳지 않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도리에 맞는다면 舜임금이 堯임금에게 천하를 받은 것도 사치스럽지 않거늘, 자네는 어찌 이것을 사치스럽다 생각하는가?”

彭更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祿을 먹는 것이 옳지

之田也, 旃以招大夫, 弓以招士, 皮冠以招虞人, 臣不見皮冠, 故不敢進。”乃舍之。仲尼曰, “守道不如守官。”君子韙之。”

않다는 말씀입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자네가 功을 타인과 나누고 일의 성과물을 교환하여 남는 것을 부족한 것에 보태주지 않는다면, 농부는 곡식이 남아 쌓이게 되고, 여인네들은 포목이 남아 쌓여있게 될 것이네. 만일 자네가 그런 것들을 잘 소통시킨다면 관 짜는 목공이나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까지도 모두 자네 덕분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일세. (이런 경우라면)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선왕의 도를 지키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네에게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걸세. 자네는 어찌하여 관 짜는 목공이나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자도 그토록 존중하면서 仁과 義를 실천하는 사람을 경멸한단 말인가?”

彭更이 말하였다.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자가 道를 행하는 것도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자네는 어찌 그 목적만을 가지고 따지는가. 그들이 자네에게 도움을 주거나 먹여줄 만한 일을 하면 그들을 먹여 주는 것일세. 그렇다면 자네는 (사람들의) 의도만을 보고 먹여주는가? 결과를 보고 먹여주는가?”

彭更이 말하였다. “의도를 보고 먹여줍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지붕에 기왓장을 부수고 담장에 그림이나 그리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자네는 그 사람을 먹여주겠는가?”

彭更이 말하였다. “먹여주지 않습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의도를 보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먹여주는 것일세.”

彭更問曰“後車數十乘，從者數百人，以傳食於諸侯，不以泰乎？”孟子曰“非其道，則一簞食不可受人，如其道，則舜受堯之天下，不以爲泰，子以爲泰乎？”曰“否，士無事而食，不可也。”曰“子不通功易事，以湊補不足，則農有餘粟，女有餘布，子如通之，則梓匠輪輿皆得食於子，於此有人焉，入則孝，出則悌，守先王之道，以待後之學者，而不得食於子，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曰“梓匠輪輿，其志將以求食也，君子之爲道也，其志亦將以求食與？”曰“子何以其志爲哉？其有功於子，可食而食之矣，且子食志乎？食功乎？”曰“食志。”曰“有人於此，毀瓦畫墁，其志將以求食也，則子食之乎？”曰“否。”曰“然則子非食志也，食功也。”<滕文公下>

彭更은 孟子의 제자다. 그가 보기에 孟子와 제자들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제후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처럼 보였다. 彭更은 이러한 불만을 孟子에게 토로했고, 孟子는 이에 반박을 가하였다. 彭更과 孟子의 대화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立1 (彭更) 선생님은 제후들에게 얻어먹으면서 사치스럽다.
- 破1 (孟子) 도리에 맞는 경우 사치가 아니다.
- 立2 (彭更) 선비가 하는 일 없이 얻어먹으면 안 된다.
- 破2 (孟子) 仁과 義를 행하는 것도 일이다. 선비도 목공처럼 일을 하여 그 공로를 나누는 것이다.
- 立3 (彭更) 노동자는 밥을 목적으로 하지만, 군자는 밥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破3 (孟子) 공로가 있으면 밥을 주는 것이다.
- 問 (孟子) 그대는 의도를 보고 밥을 주는가, 결과를 보고 밥을 주는가?
- 答 (彭更) 의도를 보고 밥을 준다.
- 問 (孟子) 기와를 부수고 벽에 낙서하면서 밥을 목적으로 한다면 밥을 주겠는가?
- 答 (彭更) 밥 안 준다
- (孟子) 그러면 그대는 결과를 보고 밥을 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彭更과 孟子의 대화는 크게 세 개의 立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立은 ‘孟子의 행렬이 사치스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비가 일을 안 하고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군자는 仁義를 행하면서 밥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彭更이 내린 세 가지 가치판단은 孟子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다. 우선 도리에 맞으면 국가를 받아도 사치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두 번째로 선비가 행하는 仁義도 일종의 노동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경우와 달리 문답법을 반복하며 彭更의 말에 비판을 가한다. 결국 연속적인 질문에 의해 彭更은 자신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공로를 따져 밥을 준다는 것이 드러났고, 아울러 ‘군자는 仁義를 행하면서 밥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은 그릇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기에서 세 가지 立破의 중복을 보면, 논리 전개와 그에 대한 반박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立1→立2→立3으로 옮겨가면서 토론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으며, 破1, 破2를 거쳐 破3에서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잘못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는 孟子 立破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데, 뒷부분에 이를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立破의 반복적인 형식은 대립과 충돌이 중복되기 때문에 先立後破에 비해 긴장이 중복되면서 박진감과 생동감을 전해 준다.

한편, 孟子가 사용한 立破의 중복형태 중에는 일종의 변형된 형태도 있는데, 그것이 破立破다. 이는 立破立破에서 처음의 立이 생략된 형태를 말한다. <公孫丑下>에는 齊나라의 平陸지역 大夫와 孟子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있다.

孟子가 平陸에 가서 그 大夫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창을 잡은 전사가 하루에 세 번 대오를 이탈한다면 버리겠는가? 그대로 두겠는가?”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도 대오를 이탈함이 많습니다. 흉년에 그대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은 구렁을 전진하고, 장성한 자들 중에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받아다가 대신 기르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반드시 목장과 풀을 구할 것이니, 목장과 풀을 구하다가 얻지 못한다면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서 그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는 저의 잘못입니다.”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 否乎?” 曰 “不待三”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公孫丑下>

平陸의 대부가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고, 孟子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장법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破賓 問 병사가 세 번 근무 이탈하면 버리겠는가?

答 버린다

主 그대도 대오 이탈이 많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잘 돌보지 않았다.

立 내 능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破賓 問 가축을 대신 길러주는 사람이 먹이를 못 찾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는가, 그냥 굶주리게 하는가?

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白圭의 경우에서처럼 平陸의 대부가 먼저 자신의 정치에 대

해 언급이 있었다면 立破立破의 구도였겠지만, 앞의 立이 생략되어 孟자의 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破立破의 형식이 된 것이다. 위의 破立破의 구도는 「(孟子) 그대가 정치를 잘못했다」→「(대부) 천재지변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孟子) 그대가 잘못 돌본 것이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록 立破立破에서 立이 생략된 형태지만, 대립과 충돌, 추궁과 모면 그리고 재차 추궁으로 이어지면서 변화의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근무 이탈한 병사를 통해 흉년에 근무에 소홀히 한 평육 대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賓主法을 사용하여¹⁰⁾ 平陸大夫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孟子 立破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3 全破

全破는 특이한 立破의 구도로, 立은 생략되고 破만 있는 경우이다. 이는 시종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기세가 매우 강렬하다. 다음에 인용한 <梁惠王上>의 구절은 全破의 특징을 잘 그려낸다.

孟子가 齊宣王에게 말하였다. “왕의 신하 중에 妻子를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유람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 친구가 妻子를 굶주리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친구관계를 끊어버리겠소.”

(孟子가 말하였다) “재판장이 재판관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王이 말하였다) “그를 그만두게 하겠소.”

(孟子가 말하였다) “국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좌우를 살피더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孟子謂齊宣王曰“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比其反也，則凍餒其妻子，則如之何？”王曰“棄之。”曰“士師不能治士，則如之何？”王曰“已之”曰“四境之

10) 賓主法은 “보조재료(賓)를 사용하여, 주요재료(主)를 부각시키면서 요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장법의 일종(運用輔助材料「賓」, 來凸顯主要材料「主」, 從而有力地傳達出主旨的一種章法)”이다. 陳滿銘 《章法學綜論》(臺北: 萬卷樓, 2003年), 28쪽.

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梁惠王上>

위의 내용을 장법구도로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 破 賓1 問 妻자를 친구에게 맡기고 외국 갔다 왔는데 妻자가 굶주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答 절교합니다.
 賓2 問 재판장이 재판관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합니까?
 答 그만두게 합니다.
 主 問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다른 말을 꺼냈다

孟子는 齊宣王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만, 서두도 없이 불쑥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그는 賓主法을 사용하여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를 꺼낸다. 「친구가 부탁한 妻자를 굶게 한 경우」와 「재판장이 재판관을 다스리지 못한 경우」를 賓으로 하고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를 主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개의 賓을 통해 점차 齊宣王의 잘못된 행위로 비판의 초점이 옮겨간다. 즉,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예를 「친구」→「재판장」→「군주」로 좁혀가면서 齊宣王을 압박하고 있다. 孟子의 기세와 논리가 거세기 때문에 제선왕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이처럼 全破의 구도는 대립과 충돌보다는 일방적인 비판이기 때문에 기세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일반 사람도 아닌 군주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孟子의 好辯이 부각되는 장면이다.

3. 破의 점진적 압박

앞에서는 《孟子》의 立破구도를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孟子가 破를 통해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立破法은 의견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글쓰기 형태이다. 만약 立破의 대립 없이 破만 있다면 주제를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問答 형식을 빌린 立破는 立이 없다면 破의 생명력을 상실한다. 때문에 立破의 대립은 破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孟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立破 구도를 사용하였다. 孟子가 사용한 立破 구도는 단순 대립을 뛰어넘어 건립(立)과 파괴(破)를 반복시킴으로써 쫓고 쫓기는 수세와 공세의 형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점진적으로 압박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梁惠王上>의 孟子와 梁惠王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孟子는 梁惠王의 정치적 잘못을 깨우쳐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와 칼날을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과 정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孟子對曰“殺人以梃與刃，有以異乎?”曰“無以異也。”“以刃與政有以異乎?”曰“無以異也。” <梁惠王上>

그릇된 정치는 심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때문에 몽둥이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잘못된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說伏시키기 위하여 孟子는 몽둥이, 칼, 정치로 옮겨가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논리를 수궁하도록 서서히 압박을 가하며 궁지에 몰아넣는다. 이처럼 점진적인 압박은 孟子 화법의 특징인데, 立破法에서 자주 사용된다. 앞서 인용한 <梁惠王上>의 경우, 「친구」에서 「재판장」으로, 다시 「군주」의 경우로 범위를 좁혀가며 齊宣王이 반론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결국 제선왕은 패배를 인정하듯 화제를 돌리며 탄청을 피운다. 앞에서 인용한 <公孫丑下>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平陸 大夫의 잘못을 추

궁하기 위하여, 「대오를 이탈한 병사」의 예를 들었고, 그가 수궁하지 않자 다시 「가축을 맡아서 기르는 자」의 예를 들어 몰아붙여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한다. 孟子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孟子는 상대방을 압박할 때 문답형식을 자주 사용한다. 즉 孟子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한다. 陳相과 나눈 대화는 그 좋은 예이다. 陳相은 儒道를 배웠다가 뒷날 許行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이다. 許行은 고대 帝王 神農氏가 백성들과 더불어 농사를 지어 가며 천하를 다스렸던 것을 본받자고 주장하였다. 陳相은 孟子에게 임금이 손수 농사를 지으며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陳相이 孟子를 보고서, 許行의 말을 전하며 말하였다. “滕나라 군주는 진정 賢君이지만, 아직 道를 체득하지는 못했습니다. 賢者는 백성과 함께 밭을 갈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인데, 지금滕나라에는 창고와 곡간이 있으니 이는 백성을 해쳐 자신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賢者라 할 수 있겠습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許子は 반드시 곡식을 심어서 먹는가?” “그렇습니다.” “許子は 반드시 삼베를 짜서 입는가?” “아닙니다. 許子は 갈옷을 입습니다.” “許子は 관을 쓰는가?” “관을 씁니다.” “무슨 관을 쓰는가?” “흰 비단 관을 씁니다.” “스스로 짠 것인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교환한 것입니다.” “許子は 어째서 스스로 (관을) 짜지 않는가?”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許子は 가마솥과 시루로 밥을 지으며, 철재 농구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가?” “네.” “(그런 기구들을) 스스로 만드는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곡식을 기계와 바꾸는 것은 陶工이나 冶工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陶工이나 冶工 역시 자신이 만든 기계로 곡식을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를 해치는 것이 되겠는가! 또 許子は 어째서 도기와 철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그것을 모두 집안에 가져다 쓰는가? 어찌 번거롭게 百工들과 교환하는가? 어찌하여 許公은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百工의 일은 진실로 경작을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경작을 하면서 할 수 있는가? 大人의 일이 있고 小人의 일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百工이 하는 일을 모두 하여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한다면, 이는 천하의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도로를 왕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옛말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고 하였는데,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법도이다.”

陳相見孟子，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雖然，未聞道也，賢者與民並耕而食，饗殮而治，今也滕有倉廩府庫，則是厲民而以自養也，惡得賢？”孟子曰：“許子必種粟而後食乎？”曰“然”“許子必織布而後衣乎？”曰“否，許子衣褐。”“許子冠乎？”曰“冠”曰“奚冠？”曰“冠素”曰“自織之與？”曰“否，以粟易之。”曰“許子奚爲不自織？”曰“害於耕。”曰“許子以釜甑爨，以鐵耕乎？”曰“然”“自爲之與？”曰“否，以粟易之。”“以粟易械器者，不爲厲陶冶，陶冶亦以其械器易粟者，豈爲厲農夫哉？且許子何不爲陶冶，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何許子之不憚煩？”曰“百工之事，固不可耕且爲也。”“然則治天下，獨可耕且爲與？有大人之事，有小事之事，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如必自爲而後用之，是率天下而路也。故曰，或勞心，或勞力，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滕文公上>

위의 단락은 先立後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立에서 陳相은 경작하지 않는 滕文公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孟子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그의 그릇된 사고를 지적하고 있다. 孟子와 陳相의 문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許行은) 곡식을 심는가?” “그렇다”
- “삼베를 짜는가?” “갈옷을 입는다”
- “관을 쓰는가?” “쓴다”
- “무슨 관을 쓰는가?” “흰 비단 관을 쓴다”
- “스스로 짠 것인가?” “곡식을 주고 교환한 것이다.”
- “왜 스스로 짜지 않는가?”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가마솥 등 기구는 사용하나?” “사용한다”
-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가?” “곡식을 주고 바꿔온다.”
- “왜 안 만들고, 번거롭게 교환해 쓰는가?” “百工의 일은 농사하며 할 수 없다.”
-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농사하면서 할 수 있는가?” “.....”
- “대인과 소인의 일이 따로 있고, 勞力과 勞心の 일이 다르다.”

陳相의 비난에 대해 孟子는 간단하게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로 陳相을 설복시킬 수 없다.

孟子는 陳相의 그릇된 사고의 핵심부터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우선 「곡식」에서 「옷」, 「관」, 「취사도구」, 「농기구」로 질문의 범위를 넓혀가며 許行이 이것을 직접 만들어 쓰는지 묻는다. 그리고 許行이 곡식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교환하여 쓴다는 것과, 농사를 지으면서 器物을 만드는 일은 병행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받아낸다. 이에 孟子는 陳相의 말을 근거로 농사를 지으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냐고 되묻는다. 맹자는 진상의 답변이 없자, 모든 일은 勞力과 勞心으로 구분되며,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勞心에 속하는데, 이것이 勞力에 속하는 농사 보다 상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농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陳相의 논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孟子는 陳相이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의 사고의 핵심으로 접근해 간다. 그리고 陳相의 논리를 근거로 오리어 그에게 반문하고 압박하며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계속적인 질문으로 궁지에 몰려 찢찢 매는 陳相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문장의 처음, 陳相은 농사를 짓지 않는 滕文公에 대해 “어찌 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난하면서 孟子를 몰아붙였다. 자칫 응대를 잘못하면 계속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孟子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그를 점점 압박해 들어가다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듯하다. 수세에 몰렸던 孟子가 도리어 반격을 가하면서 논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전세를 역전시키는 화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처럼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공격 포인트를 찾아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 이외에, 孟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공세에 말려들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공세를 가하는 것이다. <告子下>에서 벌어지는 淳于髡과의 대화가 그 좋은 예이다.

淳于髡가 말하였다. “명성과 실세를 우선하는 자는 타인을 위하는 사람이요, 명성과 실세를 뒤로 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三卿 중의 한 분으로 계셨는데 명성과 실세가 아직 위아래로 미치지 않았는데 떠나시니 仁者は 원래 이렇습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현명함으로 不肖

한 자를 섬기지 않은 사람이 伯夷이고, 다섯 번 湯王을 찾아가고 다섯 번 桀王을 찾아가간 사람이 伊尹이며, 추악한 군주를 미워하지 않고 작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은 자는 柳下惠였다. 이들 세 사람은 방법이 같지 않았으나 지향한 바는 하나이다.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仁이다. 군자는 仁을 행할 뿐이니 그 방법이 반드시 같아야 하겠는가? (淳于髡가 말하였다) “魯나라 繆公 때에 公儀子が 政事를 하였고, 子柳와 子思가 신하가 되었으나, 魯나라의 땅이 더욱 심하게 축소되었으니, 이처럼 賢者는 나라에 無益한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虞나라는 百里奚를 등용하지 않아 망했고, 秦穆公은 그를 등용하여 霸者가 되었다. 이처럼 賢者를 등용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 어떻게 땅만 축소될 뿐이겠는가?” (淳于髡가 말하였다) “옛날 王豹가 淇水가에 살적에 河西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였습니다. 또 綿駒가 高唐에 살적에 齊나라의 서쪽 지방 사람들도 노래를 잘하였으며, 華周와 杞梁의 아내가 그 남편의 상에 곡을 잘하자 나라의 풍속이 변했습니다.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니, 저를 일을 하고서 그 공적이 없는 자를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세상에 賢者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제가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孔子께서 魯나라의 司寇가 되셨는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느 날, 주군을 따라 제사에 갔을 때에 祭肉이 갖추어지지 않자 면류관을 벗을 겨를도 없이 떠나가셨다. 孔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기 때문에 떠났다고 했고, 공자를 아는 자들은 무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孔子는 작은 죄로써 구실을 삼아 떠나려고 했으며, 구차하게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군자가 하는 바를 일반 사람들은 진정 알지 못하는 것이다.”

淳于髡曰“先名實者爲人也，後名實者自爲也。夫子在三卿之中，名實未加於上下而去之，仁者固如此乎？孟子曰“居下位，不以賢事不肖者，伯夷也。五就湯，五就桀者，伊尹也。不惡汚君，不辭小官者，柳下惠也。三者不同道，其趨一也，一者何也，曰仁也，君子亦仁而已矣，何必同。”曰“魯繆公之時，公儀子爲政，子柳子思爲臣，魯之削也滋甚，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曰“虞不用百里奚而亡，秦穆公用之而霸，不用賢則亡，削何可得與？”曰“昔者王豹處於淇，而河西善謳，綿駒處於高唐，而齊右善歌，華周杞梁之妻，善哭其夫，而變國俗，有諸內，必形諸外，爲其事而無其功者，髡未嘗睹之也。是故，無賢者也，有則髡必識之。”曰“孔子爲魯司寇，不用，從而祭，燔肉不至，不稅冕而行，不知者，以爲爲肉也，其知者，以爲爲無禮也，乃孔子則欲以微罪行，不欲爲苟去，君子之所爲，衆人固不識也。” <告子下>

淳于髡은 齊나라의 辯士이다. 孟子가 齊나라 三卿의 지위에 있었으나 아무 실적 없이 떠나려 하자, 淳于髡가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 단락은 立破가 세

번 중복된 형태이다. 이 구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立) “명성과 실세를 이루지 않고 떠나는 것은 잘못되었다.”
- 破) “仁을 행하는 방법은 많다. 떠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다. 仁이 목적이니 방법이 동일한 필요가 있는가?”

- 立) “賢者は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 破) “賢者を 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 立) “功績은 반드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功績이 없는 것이다.”
- 破) “군자가 하는 일을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淳于髡은 공격 없이 떠나는 맹자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공세를 가한다. 이 때, 만약 맹자가 ‘떠나는 것도 맞다’로 대응한다면 여전히 수세에 몰릴 수 있다. 孟子는 상대방의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 반격을 가한다. 孟子는 논쟁의 범위를 ‘떠나는 행위’에 국한시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반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孟子는 ‘떠나는 것은 仁을 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사람마다 仁을 행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떠나는 행위에 대한 是是非非가 무의미해짐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이 無力化된다. 두 번째 대화도 비슷하다. ‘賢者は 無益하다’라는 공격에 ‘賢者は 有益하다’고 응하면 수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孟子는 아예 상대방의 논지를 부정하고 더 강력한 기세로 ‘賢者を 안 쓰면 망한다.’라고 몰아붙인다. 마지막 대화도 이와 같다.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淳于髡의 생각에 대해, ‘능력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하면, 상대방의 논쟁에 계속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孟子는 여기에서도 말려들지 않는다. 그는 孔子의 예를 들어 ‘군자가 하는 일은 일반 백성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반박하며, 현상만 따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淳于髡를 비판한다. 이처럼 孟子는 상대방의 공격 범위 내에서 반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시한 논지의 범위에서 是是非非를

가리지 않고, 보다 큰 범위에서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 논리를 무력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던 孟子는 오히려 淳于髡를 몰아붙일 수 있게 된다. 수세를 공세로 역전시키는 孟子의 화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4. 비유를 통한 공세

孟子가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맹자는 立破형식 중에서도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특히 破에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破에서 드러난 비유 활용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적절한 비유는 설득력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다. 비유를 적절히 사용할 때 상대를 쉽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비유라도 상대방의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孟子는 상대방의 성향을 명확히 알고 이에 맞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오십보 백보’의 비유를 살펴보자.

梁惠王이 말하였다. “寡人은 나라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河內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河東지방으로 옮기고, 河東지방의 곡식을 河內 쪽으로 옮기며, 河東지방에 흉년이 들더라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면 과인이 마음 쓰듯이 하는 자가 없는데도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더 줄어들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孟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투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북이 등등 울리고 양쪽 군사간의 병기가 부딪치게 되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면서 달아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백보를 달아나다 멈추고 어떤 이는 오십 보를 달아나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십 보 달아났다는 이유로 남이 백보 달아난 것을 비웃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梁惠王이 말하였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다만 백보를 달아나지 않을 뿐 이것 또한 달아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孟子가 말하였다. “왕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옵소서. 농사짓는 때를 어기지 않는다면 곡식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 길에는 굶어 죽은 송장이 나뒹굴어도 곡식을 풀어서 먹일 줄 모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흉년이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칼로 찢러 죽여 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흉기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왕께서는 흉년을 타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何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察隣國之政，無如寡人之用心者，隣國之民不加少，寡人之民不加多，何也？”孟子對曰 “王好戰，請而戰喻，填然鼓之，兵刃既接，棄甲曳兵而走，或百步而後止，或五十步而後止，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曰 “不可，直不百步耳，是亦走也。”曰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塗有餓殍而不知發，人死則曰，‘非我也，勢也。’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兵也’王無罪歲，斯天下之民至焉。” <梁惠王上>

이 단락은 “나는 정치를 잘하는데, 백성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梁惠王에게 孟子가 비판을 가하는 내용으로, 문답법을 활용한 先立後破의 구도에 속한다. 孟子는 여기에서 ‘오십보백보’의 비유를 든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의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王好戰，請而戰喻)”라는 孟子의 말을 근거해 보면, 전쟁의 비유를 든 것은 梁惠王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孟子는 ‘오십보백보’의 비유를 賓으로 설정하여 놓고, 梁惠王에게 오십 보가 백 보를 비웃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낸다. 그런 다음, 평상시에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을 혹사시키면서 흉년에 간혹 굶주림을 모면하게 해주는 梁惠王이, 이웃 국가들이 자기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한다. 孟子의 立破法에서 볼 수 있는 점진적인 압박의 방법이다. 孟子는 또한 백성을 굶어죽게 하는 것은 사람을 칼로 찢러 죽이고서 칼이 그렇게 했다고 탓하는 것이라 비유한다. 孟子는 이처럼 梁惠王이 쉽게 이해하도록 전쟁, 칼, 몽둥이, 살인 등의 강렬한 제재를 사용하여 梁惠王의 그릇됨을 지적한다.¹¹⁾

11) 앞에서 인용한 <梁惠王上> 중에 사람을 몽둥이와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은

孟子가 사용한 비유는 다소 과장된 것이 특징이다. 맹자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착오를 뚜렷하게 드러나게 한다. 孟子的 또 다른 대화를 보도록 하자.

戴盈之가 말하였다. “10분의 1을 걷는 稅制와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없애는 것은 금년에는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세금을 경감하고 내년에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었는데, 어떤 이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오.’라고 하자, ‘그 수를 줄여서 매 달 한 마리를 훔쳐 먹다가 내년에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만일 義가 아님을 안다면 속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

戴盈之曰“什一，去關市之征，今茲未能，請輕之，以待來年然後已，何如？”孟子曰“今有人，日攘其隣之雞者，或告之曰‘是非君子之道’，曰‘請損之，月攘一雞，以待來年然後已。如其非義，斯速已矣，何待來年。’” <滕文公下>

戴盈之는 宋나라의 대부로 세금 철폐를 미루고자 하였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논리지만, 孟子는 그의 논리적 잘못을 비유를 통해 지적한다. 즉 닭을 훔치는 도둑이 훔치는 닭의 숫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역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릇된 행위의 횡수와 양을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훔치는 닭의 수를 줄여 한 마리씩 훔치다가 내년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 도둑의 이야기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과장스러운 비유이다. 하지만 이렇게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그 잘못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是非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안은 다소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의 착오를 드러나게 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滕文公下>의 彭更과 孟子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사람의 목적을 보고 밥을 준다는 彭更의 생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孟子는 의도와 결과가 상반된 비유를 든다. 즉 어떤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기와를 부수고 담에 낙서를 할 경우, 그의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彭更이 공로를 근거해서 밥을 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孟子는 상대방 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몽둥이, 칼, 살인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梁惠王을 공격하고 있다.

리의 오류를 극대화시킨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압박하는데, 과장된 비유는 논리의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孟子는 <告子下>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任나라 사람이 屋廬子에게 물었다. “禮와 밥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禮가 중요하다.”

“色과 禮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禮가 중요하다.”

“禮를 따르면 굶어 죽고, 禮를 따르지 않으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반드시 禮를 따르겠는가? 親迎의 禮를 하면 아내를 얻지 못하고 親迎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더라도 반드시 親迎을 해야 하는가?”

屋廬子が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鄒나라에 가서 孟子에게 아뢰었다. 孟子가 말하였다.

“그것을 답하는데 뭐가 그리 어려운가? 그 시작점을 따지지 않고 그 끝만을 평가한다면 한 치 되는 나무토막도 岑樓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쇠가 깃털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찌 하나의 갈고리 쇠와 한 수레의 깃털을 말함이었는가? 먹고사는 것의 중요한 부분과 禮의 가벼운 일례를 비교하면 어찌 먹고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는가? 色의 중요한 부분과 禮의 가벼운 부분을 비교하면 어찌 色이 중요할 뿐이었는가? 가서 이렇게 대답하여라. ‘형의 팔을 비틀고 밥을 빼앗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고, 형의 팔을 비틀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할지라도 장차 비틀겠는가? 동쪽 집의 담장을 뛰어넘어 처자를 끌어오면 아내를 얻고, 끌어오지 않으면 아내를 얻지 못하는데 그래도 끌어오겠는가?’라고 말이다.”

任人有問屋廬子曰“禮與食，孰重？”曰“禮重。”“色與禮，孰重？”曰“禮重。”曰“以禮食則飢而死，不以禮食則得食，必以禮乎？親迎則不得妻，不親迎則得妻，必親迎乎？”屋廬子不能對。明日，之鄒，以告孟子。孟子曰“於答是也，何有，不揣其本而齊其末，方寸之木，可使高於岑樓，金重於羽者，豈謂一鈞金與一與羽之謂哉？取食之重者，與禮之輕者而比之，奚翅食重！取色之重者，與禮之輕者而比之，奚翅色重！往應之曰‘紵兄之臂而奪之食則得食，不紵則不得食，則將紵之乎？踰東家牆而攫其處子則得妻，不攫則不得妻，則將攫之乎？’<告子下>

위의 인용문은 비록 任나라 사람과 孟子가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任나라 사람과 孟子의 의견이 대립되는 형식이다. 任나라 사람은 食과 色이 예절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孟子가 반박을 가하는 형

식이기 때문에 先立後破의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언뜻 보면 任나라 사람의 주장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가 예로든 食, 色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食과 色의 중요한 부분과 禮의 가벼운 부분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한 수레의 깃털과 쇠갈고리 하나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서로 동등한 輕重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孟子는 형의 팔을 비트는 것과 담장을 넘는 비유를 든다. 부모와 형제는 인륜의 기본 단위이다. 형의 팔을 비트는 행위는 禮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禮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담을 넘어 여자를 훔치는 행위 역시 非禮의 극치이다. 이처럼 예의 중요한 부분과 食과 色의 중요한 부분을 비교해야, 비로소 그 輕重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孟子는 상대방의 논리를 근거로 그것을 극대화한 비유를 설정하여 그 오류를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고 더불어 자신의 논리에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孟子 立破구도의 특징은 침예한 대립과 강한 논리적 압박이다. 상대방이 비유를 통해 孟子를 공격할 때에도, 孟子는 그 비유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다시 상대방을 압박한다. 위의 任나라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그가 설정한 비유를 근거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였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과 같아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다. <離婁上>의 淳于髡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淳于髡가 말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적에는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그것이 예절이다.”

淳于髡가 말하였다.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는 손으로 끌어당겨 구합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끌어당겨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은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을 적에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는 것이 예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끌어당겨 구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淳于髡이 말하였다. “지금 온 천하가 물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찌서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孟子가 말하였다. “온천하가 물에 빠져 허덕이게 되면 道를 가지고 구원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당겨 구원한다.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원하겠는가?”

淳于髡曰 “男女授受不親禮與?” 孟子曰 “禮也.” 曰 “嫂溺則援之以手乎?” 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禮也, 嫂溺援之以手者權也.” 曰 “今天下溺矣, 夫子之不援何也?” 曰 “天下溺, 援之以道. 嫂溺, 援之以手. 子欲手援天下乎?” <離婁上>

淳于髡이 생각하기에, 孟子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도탄에 빠진 천하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淳于髡이 문답법을 사용하여 孟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는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녀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禮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 다음, 특수한 상황에서는 형수의 손을 잡아 구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이 禮의 權衡이라는 결론을 얻어낸다. 淳于髡은 이를 근거로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의와 절차를 따지지 말고 천하를 구해야 한다고 孟子를 압박한다. 孟子가 자주 사용하는 점진적인 압박의 방법을 淳于髡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孟子는 형수를 구하는 손으로 천하를 구할 수 없다고 대응하며 淳于髡의 공격을 무력화한다. 孟子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상황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孟子는 淳于髡이 사용한 비유를 역이용하여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수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위 인용문은 先立後破의 형식으로 淳于髡의 추궁(立)이 孟子의 반론(破)보다 길지만, 비유를 역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보다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녀 상대방이 반론할 수 없게 만든다.

孟子가 상대방의 비유를 역이용하는 것은, 철학적인 대화에 자주 등장한다. <告子上>에는 孟子가 告子和 나눈 性에 대한 토론이 있다.

告子が 말하였다. “性은 버드나무 가지와 같고 義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仁義를 행함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孟子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버드나무 가지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서 그릇을 만드는가? 버드나무에 손상을 입혀서 그릇을 만드는 것인가? 만일 버드나무 가지에 손상을 입혀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면, 또한 사람에게도 손상을 입혀서 仁義를 행하게 한다는 말인가? 천하의 사람을 몰아서 仁義를 해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말하는 데서 생겨나는 법일세.”

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柎捲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柎捲.”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柎捲乎? 將戕賊杞柳而後以爲柎捲也, 如將戕賊杞柳而以爲柎捲, 則亦將戕賊人, 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告子上>

위의 내용은 先立後破의 구도이다. 告子は 性이 버드나무 가지와 같고, 義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그릇과 같다고 주장한다. 원래 버드나무 가지에 그릇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人性에는 仁義가 없지만 후천적으로 仁義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이에 대해 孟子는 다른 비유를 들어 반론하지 않고 그 비유를 그대로 활용한다. 즉 그릇을 만드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의 본래 성을 해치는 것인데, 이를 근거한다면 仁義를 행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告子가 仁義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상대방 비유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 비유를 그대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다. 다음 단락도 이와 유사하다. 고자는 性이 여울물과 같다고 주장하며, 東으로 물길을 트면 東으로 가고 西로 트면 西로 간다고 설명하면서 性에는 善도 없고 不善도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孟子는 물의 비유를 그대로 활용하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정한 규율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善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 역시 상대방의 비유에서 허점을 찾아, 이

12) 告子가 말한 人性에는 仁義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告子는 性을 無善, 無惡하며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가치개념의 개입은 후천적이며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맹자는 仁義를 행하는 것이 性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俞成善 <孟子와 告子의 人性論辯 研究> (《江原人文論叢·제4집》, 1997년 2월) 142-143쪽.

13) 告子가 말하였다. “性은 여울물과 같다. 그리하여 이것을 東으로 터놓으면 東으로 흐르고 西로 터놓으면 西로 흐른다. 人性도 善과 不善이 구분이 없는데 이는 마치 물이 東西에 분별이 없는 것과 같다.” 孟子가 말하였다. “물은 진정 東西의 구분이 없지만 上下의 구분도 없는가? 人性이 善함은 물이 아래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착한 것은 마치 물이 모두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를 근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5. 나오며

이상에서 필자는 《孟子》에서 사용된 立破의 구도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立破는 孟子가 타인과 나눈 대화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 형식은 매우 다양하였다. 孟子는 자주 사용한 구도는 先立後破로, 이는 상대방의 의견이 제시되고 이에 대해 孟子가 비판을 가하는 형식이다. 先立後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도이지만 孟子는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즉각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가 하면, 완곡하게 에둘러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는 立1 立2破1破2의 형식도 사용하였다. 孟子는 立破의 중복된 형식도 사용하여, 立破立破立破의 형태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立破중복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破立破를 사용하거나, 立은 없고 破만 있는 全破의 형식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孟子는 여러 가지 형태의 立破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비판하였다.

立破구도는 立과 破의 대립 속에서 破가 어떤 논리로써 立을 타파하느냐에 관건이 있다. 맹자가 사용한 立破의 구도 속에서, 破는 맹자 특유의 집요하고도 강렬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孟子는 특히 立破의 반복형식 속에서, 賓主法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또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 그의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논리를 부정하거나 無力化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반격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 밖에 孟子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략하였는데,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猶水之就下也。人無有不善，水無有不下。”<告子上>)

상대방이 사용한 비유를 역이용하여 공세를 펼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공세를 가하기 때문에, 立破구문이 孟子와 타인의 대등한 대립과 충돌이라기보다는 시종 우세한 형세를 취하고 있다.

孟子 立破法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데 있다. 점진적이고 집요한 추궁은 상대를 논리의 궁지에 몰아넣어 꼼짝달짝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연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孟子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孟子 立破구문의 핵심은 立破의 대립과 긴장이라기보다 破의 일방적인 공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孟子가 보여준 立破의 대립은 마치 한편의 권투경기를 보는 것과 같다. 잔 펀치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 붙여, 점점 강한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가 하면, 반격을 못하도록 지속적인 공세를 펼쳐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도 한다. 그러다 간혹 반격해오면 그 힘을 이용하여 카운터펀치를 날려 치명상을 입히기도 한다. 상대를 때려 눕혀야 내가 승리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는 권투선수와 같이, 孟子는 楊朱·墨翟 그리고 비뚤어진 세상의 관념을 때려 눕혀야 하는 급박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맹자가 다양한 立破의 형식을 활용하고, 집요하게 공세를 가하여 상대방을 제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릇된 행동을 추방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내쫓기(正人心, 距諛行, 放淫辭)” 위해서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취졌던 孟子의 모습이, 타인에 눈에는 “따지기 좋아하는(好辯)” 모습으로 비취졌을 수 있다. 그의 이러한 好辯의 특징이 立破의 형식 속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參考文獻 >

阮元等, 《十三經注疏》, 臺北: 新文豐, 1977.
 焦循, 《孟子正義》, 臺北: 中華書局, 1981.
 朱熹 《四書集註》, 臺北: 三民書局, 1989..

-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3.
- 仇小屏, 《篇章結構類型論(上下)》, 臺北: 萬卷樓, 2000.
- 仇小屏, 《章法新視野》, 臺北: 萬卷樓, 2001.
- 陳滿銘, 《章法學新裁》, 臺北: 萬卷樓, 2001.
- 陳滿銘, 《章法學綜論》, 臺北: 萬卷樓, 2003.
- 姜秉昌譯註, 《新完譯孟子》, 서울: 명문당, 2005.
- 陳滿銘, 《章法結構原理與教學》, 臺北: 萬卷樓, 2007.
- 俞惠善註解, 《孟子》, 서울: 흥문관, 2007.
- 俞成善, <孟子와 告子の 人性論辯 研究>, 『江原人文論叢』 제4집, 1997. 2.

< 中文提要 >

《孟子》裡面有很多內容就是孟子和別人討論或爭論。孟子在討論過程當中往往批評或打破對方的主張。按照章法學的理論，打破觀念與思想的文章屬於「立破法」。本文是以章法學「立破法」的觀點去探討《孟子》。孟子使用「先立後破」的結構，或直接批評，或委婉指責對方的想法，而且使用「立1立2破1破2」的結構，反駁對方的主張。其次，孟子使用立破重複的結構，逐漸強化向對方的攻擊水平。另外，孟子對立破重複結構給予變化，使用「破立破」以及「全破」結構。如此，孟子所用的立破結構極為豐富多樣。在內容方面，孟子使用問答法，向對方不斷提問，使對方主張的矛盾自然而然呈現出來。孟子或使用賓主法，逐漸壓迫對方，使對方走投無路。另外，孟子按照對方的生活背景舉出貼切的比喻，批評對方的錯誤。有時，孟子以對方所使用的比喻來攻擊對方，有時，按照對方的邏輯舉出較誇張的比喻來證明對方邏輯的矛盾。如此，孟子使用立破法，不斷攻擊對方，使對方逐漸限於不可反駁的地步，只好承認自己的錯誤。在這樣的過程當中，孟子的「好辯」特色自然而然呈現出來。

關鍵詞：孟子，好辯，章法學，立破法。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7	2010.1.30	2010.2.1	2010.2.8	2010.2.28